

「월간 낙농육우」 농가들의 결집에 구심점이 되기를...

한두이
경남 사천의 여성 낙농인



온통 푸르름이 천지에 가득하고 앞들에서
는 싱그러운 풀내음이 솔솔 피어난다. 어
디선가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향긋한 아카
시아 향기가 내 코끝을 스칠즈음, 나는 새삼 살
아서 이렇게 숨쉴수 있음을 그 누군가에게 하
염없이 감사한다.

15년전, 송아지 15마리로 처음 우리부부가
목장을 시작하면서 겪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고마
운 얼굴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난다. 특히, 무
지에서 시작한 낙농이라, 원유의 생산과 유통
정보라든지, 어린 송아지서부터 건유우까지의
관리라든지, 질병예방 및 치료요령 등 많은 기
술정보가 실려있는 낙농육우지는 너무나 고맙
고 엄청난 도움을 준 우리목장 최고의 선물이
었다.

게다가 문화혜택이 별로없는 시골에서는 좋
은 찾집같은 역할까지도 충실히 해주었다. 아
마도 지금까지 모아둔 월간 낙농육우가 책장에
하나 가득 될것도 같은데.... 이렇게 월간 낙농
육우가 꾸준히 성장, 발전을 거듭해 온 것처럼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집의 낙농

이었지만 이제는 일일 원유생산량 1,200kg정
도의 규모로 어엿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동안
꾸준히 혈통등록하고 개량해온 결과 원유 kg당
700원대를 넘는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1차산업 중에서도 축산업만큼은 우
리 농업 총소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알토란 같은 산업도 국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축산인들의 단합된 결
집력이 정말 필요할 것이며, 이런 구심적 역할
을 월간 낙농육우가 담당해주길 바라는 것이
다. 아울러 우리 낙농육우인은 협회를 중심으
로 하나되는 단결력을 보일때 개방의 파고와
같은 어려운 과제 앞에서도 거뜰히 해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한번 4만세기를 맞는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
로 최선을 다해 우리 농업인을 대표하는 1등 정
보지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 풍성한 내일을 꿈
꾸며, 송아지 우는 소리를 뒤로하고 봄이 익어
가는 들녘으로 살며시 나서본다.☺